

핸즈코퍼레이션, 폭스바겐 북미 공장에 258억원 공급 계약

- 글로벌 매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장기 성장 모멘텀 확보



폭스바겐 미국 공장

생산 개시	2011년 5월
위치	테네시주 체터누가
주요차종	파사트, 아틀라스

[사진제공 = 핸드코퍼레이션]

<2018-07-16> 자동차 휠 제조업체 핸드코퍼레이션(143210, 회장 승현창)은 폭스바겐에 알루미늄 휠을 공급한다고 1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핸드코퍼레이션은 2019년부터 4년간 258억원 규모로 폭스바겐 미국 공장에서 생산될 차량에 알루미늄 휠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부터 폭스바겐에 대한 공급을 시작하였고 주로 유럽 지역에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이번 계약을 통해 처음으로 북미지역 폭스바겐 공장으로 제품을 확대 공급하게 됐다.

핸즈코퍼레이션 관계자는 “그 동안 폭스바겐그룹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품질 및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번 계약을 포르쉐, 아우디 등 폭스바겐그룹 모든 계열사에 대한 제품 공급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시장에 대한 핸드코퍼레이션의 휠 공급 확대는 꾸준히 지속 되고 있다. 2014~2015년부터 유럽 폭스바겐그룹과 북미 포드 및 FCA에 제품 공급을 시작했고, 지난 3월 일본 미쓰비시에 대한 첫 수주를 확정했다. 현재 건설중인 모로코 신규 공장이 완성되면 글로벌 매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더욱 가속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자료문의 : 핸드코퍼레이션 윤희욱 차장 (032-870-9527)